

# 어느 도사건의 전립선염

조 준 행  
정운동물병원

9월 30일 저녁 9시 오래간만에 C가축병원 원장으로 부터 뇨폐쇠증으로 인한 도사건의 뇨독증에 관한 전화문의가 있었고 이어서 도사건에 흔히 있는 뇨도결석제거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축인 도사건을 필자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오게하였다.

다음날이 추석이라 모처럼 부부동반으로 부모님을 뵈러 강남까지 갔었으나 급한 수술이라니 직업상 부득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병원에는 이미 이원장과 도사견 그리고 개주인이 기다리는 중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이원장과는 시간도 늦고 환축이 위급함으로 회포도 풀사이 없이 우선 수술전에 환축의 건강상태와 증상을 세밀히 조사하게 되었다. 개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 도사견

은 지금으로 부터 15일전 성남시장에서 매입하였으며 집에서 몇번 교배도 시켰으며 약 1주전에 문산에 종견으로 팔려 갔었으나 교배를 시원스럽게 못한다 하여 다시 되돌아 왔으며 그간 성욕을 돋우기 위해 덤포주사도 2대나 놓았고 돌아와선 식욕이 부진하여 식욕촉진을 위해 Bicom과 methyonn도 놓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할수없이 고기죽을 만들어서 손으로 퍼 먹었으나 이것도 3일후 부터는 전연 거부하여 부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효험이 없자 좀 멀지만 그 고장에서 유명한 원장에게 왔고 이원장은 기진한 개의 대증요법으로 5% Dextrose 1000cc에 Bicom을 5cc첨가 1일1병씩 3일간이나 정맥 주사하였으나 계속 개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식욕은 물론 기립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또 전신은 부종으로 부어서 뇨독증 증상이 나타나 청운동물병원에 오게 되었다.

축주는 도사견 전문 매매인이고 이 도사견은 종견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개로써 지금까지 구토와 뇨폐를 주증으로 하고 식욕도 절폐되었으나 3일전에 한덩어리의 변을 보았고 물만을 찾으나 조금이라도 먹으면 구토하여 먹는 물주기조차 제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도사견은 체중이 40kg이며 외관이 몹시 야위었고 연령이 4세라고 하나 그 이상인 체구종은 중형 종견이다.

그간 배설하지 못한 오줌은 병원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 약1000cc가량의 배뇨가 있어서 몹시 기뻐하고 있었다.

초기 진찰시 전신쇠약으로 등뼈와 엉덩뼈가 보일 정도이고 눈은 붉게 충혈되고 눈꺼풀은 넓게 처진상태에서 호흡시 오줌냄새를 맡을수 있을 정도 이었다. 체온을 재니 39.3℃으로 미열이고 맥박은 1분간 96인 부정맥이었고 호흡은 10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코는 찬 병원 바닥에 박고 있으며 몸은 늘어진

상태로 아무렇게나 쓰러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가까이 갔으나 쳐다보지도 않았고 눈도 감고 있었다. 간신히 일으켜 앉혀보니 흉수의 부종을 뚜렷이 볼 수 있었으며 치아는 연령에 비해 몹시 마멸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충치에 치석 그리고 결치가 보였다. 두부와 앞다리 그리고 가슴 목등에는 큼직한 상처의 흔적이 이곳 저곳 많이 볼 수 있어 이 개의 젊은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았다. 또 발톱은 평균 1.7cm 정도로 길어져 있어 그간의 운동부족을 짐작할 수 있다. 피부는 비교적 청결하고 복부는 심히 위축되어 복강이 함몰된 상태이며 반대로 생식기는 처진 상태에서 부어 있었다. 또 항문은 불결했고 Anus oil 은 짙어 있었다. 끝으로 뇨도후부 굴절부가 약간 부어 있었고 이어 장갑을 끼고 오른쪽 인지를 항문내에 넣어보니 항문주위 직장에는 변이 없었고 항문의 수축력이 보통이나 항문으로 부터 약 5cm 부위에 협소한 감을 느끼게 하여 통증을 나타내어 다시 왼손으로 하복부를 비골쪽으로 들어 올리니 더욱 통증을 나타내어 생식기에 직경 3mm Catheter를 넣었더니 뇨도구로 부터 4cm만 들어가고 더 안들어가서 다시 직경 1.5mm짜리 Catheter을 사용하니 뇨도 입구로부터 7cm 부위에 약간의 저항이 있었고 다음 24cm 부위에서 저항을 받고 간신히 통과 하였으나 다시 26.5cm 부위에서도 미미한 저항을 받았다. 아마 생리적 구조상으로는 봐서 뇨도입구로 부터 24cm가 전립선의 위치이고 뇨도입구로 부터 26.5cm 부위가 방광개시부인 것 같다.

이러한 여러증상을 미루어봐

- 1) 연령이 많은 종견이 최근 도사견봄으로 너무 무리한 교배를 하게 되었고
- 2) 이로 인한 정력소모로 만성식욕부진에서 식욕전폐되니 원기는 잃고 몸은 쇠약해져서 구토와 뇨폐현상이 나타났는데
- 3) Catheter를 사용함으로써 가벼운 뇨도폐쇄와 전립선의 염증을 알아냈고

4) 항문내의 손가락을 넣으므로 전립선의 염증을 확실하게 하였다.

치료방법으로

9월 30일

- 1) 방광내의 오줌제거 / Catheter사용
- 2) 직장내에서 전립선 맛사지와 적외선요법
- 3) 영양보충 수액으로 Aminofusin L 600 500cc Estrogen 1cc Vitamine AD<sub>3</sub>E 1cc Vitamine B<sub>1</sub> 1cc Annaka 1cc Pipemidic acid 200mg 2cap씩 1일 4회 Sodium Bicarbonat 2g내복 (1일량)

몸을 가누기 시작하여 누워있는 형태가 매우 좋아지고 Aminofusin주입후 3시간사이에 경미한 구토가 2회 있었으나 그후 물을 먹어도 구토가 없어서 1회량 300cc정도로 5회에 걸쳐서 주사하였다. 누운상태로서 수시로 배뇨하였으며 식욕은 아직도 절제하고 있다.

10월 1일

어제와 똑같은 치료를 하였다. 그 결과 나를 보면 누운채 우호의 표시로 꼬리를 흔들어서 아는 척 하였고 수시로 물을 요구하여 갈증을 호소하고 물소리를 들으면 몹시 갈증을 호소하였으나 주는 우유는 보지도 않았고 고기국 역시 먹지 않았다. 물은 어제에 비해 좀 많은 양을 주었는데 300cc씩 6회를 주고 그 사이에 500cc정도로 3회 더 주었다.

수시로 비틀거리며 서서 오줌을 누었으며 육안으로 보는 오줌에는 아무런 불순물이나 색깔의 이상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뇨취도 많이 없어졌다.

10월 2일

이날부터는 Catheter사용을 쉬었고 수액도 Aminofusin에서 5%Dextrose로 변경하였으나 생우유를 아침에 200cc나 먹으므로 저녁에 다시 300cc를 추가하여 주었으나 잘 먹었고 (물만큼 맛있게 먹지는 않은 모양이다.) 오줌도 가끔씩 나가서 누었다. 그러나 아직도 오줌을 찹끔찹끔

누었다.

#### 10월 3일

2일과 동일한 치료를 하였고 물도 더욱 많이 먹었으나 구토현상은 없었고 시간나는대로 자기 생식기를 할퀴기에 바빴으며 오줌을 싸게 되면 매우 미안한 표정을 하고 밖에 나가길 원하고 간혹 나가서 오줌을 누기도 하였다. 아직 밤은 거들며 보지않았으나 저녁에는 생계란 3개나 거뜬히 먹어 치웠다.

#### 10월 4일

3일과 같은 치료를 하였고 아침에 계란 5개를 먹었고 이어서 3시간후에 닭머리 5개를 잘 삶아서 이것을 정성스럽게 으겨서 주니 덩석 덩석 잘 먹어치웠고 오줌도 밖에 나가서 뒷다리를 번쩍 들고 누나 아직 오줌을 오래 참지 못하였고 걸음걸이는 몹시 좋아졌으나 가끔 휘청거리며 아직 척추뼈는 앙상하고 배도 훌죽하다. 그러나 저녁에는 짓기도하고 약간 활발해졌다. 또 전립선 맛사지시 통감도 덜 느끼는것 같다.

이제 물은 아무리 먹어도 구토는 물론이고 식욕도 좋아져서 우유 계란 고기국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잘 먹어대니 힘도 나서자주 일어섰으며 오줌도 힘있게 누고 산보시에는 나를 끌고 가겠다며 또 병원을 지키기 위해 제단에 수상한 방문자에게 짚어되니 이제 이원장과 상의하여 잠시 이원장의 가축병원에서 몸조리를 더 시키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이제까지 병원하나 가득 하였던 그 큰개가 퇴원하니 우리병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 결 론

최근 사람에만 있었던 병이 개에게도 차차로 생긴다는 것은 주의할일이다. 전립선염외에도 뇨도결석이나 신장염, 유방염(암), 생식기의 기형등 많은 병이 개에게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병을 알기위해서 참고로 임의의 보고서를 보지 않을수 없다.

이제 소동물계에도 노령기의 병이 생기는것

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치료에는 Hormone요법과 외과적인 전립선척출법과 거세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경과가 대단히 좋았음을 여러 원장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Hormone요법에선 간혹 여성화가 되기쉬우며 거세나 전립선의 척출은 종견으로써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있다.

#### 증상을 다시 간추리면

급성전립선염에서 발열, 원기침체, 식욕감퇴가 있고 등을 꼬부리고 납적다리로 걸으며 특히 뒷다리에 힘이 없다. 변비 배뇨이상(뇨의 빈수, 동통)백혈구 증가 또 전립선을 만지면 몹시 아파한다. (직장에 손가락을 넣을때) 또 오줌은 일반적으로 혼탁하고 농, 단백, 세균이 나오며 때에 따라서 피도 섞여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꼭 있는것이아니다.

만성전립선염에선 그 증상도 일정하지 않고 간혹 혈뇨를 볼 때가 많다.

또 이러한 전립선염은 노년기에 접한 종견에서 많이 볼수가 있고 Hormone을 과용한 숫캐에서도 볼수 있는 병이다.

#### 치료시

급성전립선염에선 강력한 화학요법을 하면 오줌에서 농이나 적혈구 단백 세균이 없어지나 화학요법을 중간에서 그만두면 증상은 다시 악화되어 만성형으로 된다.

만성에서 치료를 하여도 완치 안될때가 적지 않다. 만성의 경과중 증상이 차차로 악화되는 것은 화학요법 외에 거세나 소량의 Hormone을 사용하면 대개는 좋으나 그래도 완치되지 않을 때는 전립선의 전척출을 하는수밖에 없다.

이 전립선은 숫캐의 방광선단에 있어 여기서 뇨도가 출발하고 있다. 전립선에선 정자의 활력에 영향이 있는 분비물을 내는 기관으로 개는 젊은개에서 늙은개가 되는 사이에 발병되고 5세 이상의 개에서 60~70%가 심하건 가볍건 전립선염에 걸려있다는 통계도 있다.